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4면
전주시 우아동서
후백제 토기가마 발굴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음 12월 3일) 제269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문화관광 뉴딜 추가 발굴 · 구체화"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올해 주요 업무계획

➜ 관련기사 3면

'생활 속 문화 · 살아있는 역사로 피어나는 여행 · 체험 1번지' 비전
뉴딜 통한 활력 제고 · 글로벌 여행환경 조성 등 5가지 목표 채택
관광콘텐츠 강화 등 8대 추진전략 · 28개 세부 실행과제 추진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국장 윤여일)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14일 발표하면서 '생활속 문화와 살아있는 역사로 피어나는 여행 · 체험 1번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책목표로는 ▲코로나 시대, 변화에 대응한 뉴딜사업을 통한 활력 제고 ▲도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 활성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여행환경 조성 ▲안전하고 활기찬 생활스포츠 향유 환경 조성 ▲전북자존의 시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의 세계화 실현을 통한 전북 위상 제고 등 5가지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여행 · 체험 1번지 활성화를 위한 관광콘텐츠 강화 등 8대 추진전략과 새로운 여행수요 창출 등 28개 세부 실행과제 로드맵을 마련,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윤여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21년 전북도 문화관광체육분야 주요업무의 핵심을 ▲문화시설 기반확충을 통한 문화여가 환경조성 ▲숨겨진 관광자원 발굴 등 콘텐츠 강화 및 머물고 싶은 관광인프라 조성 ▲종합체전 전력강화를 통한 스포츠전북 위상제고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 · 전승으로 전북의 정체성 확립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확보한 디지털 미디어문화유산 아트센터 조성 등 7개 사업(국비 48억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관광분야 뉴딜사업 추가 발굴 및 구체화를 통해 미래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한 사각지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얼음 깨고 미나리 수확하는 인부들 지속적인 추위가 기승을 부렸던 14일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의 한 미나리꽝에서 인부들이 추위도 잊은 채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해외입국자 전북 이송된 인원 1만명 넘어

전북도 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인천공항 해외입국자 이송지원단을 통해 전북도로 이송된 해외입국자가 1만명을 넘었다고 14일 밝혔다.

전북소방본부는 해외입국자에 의한 도내 감염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지난해 3월부터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해외입국자 이송지원단'을 운영중이다. 18개 시 · 도 중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이송지원단을 운영하는 곳은 전북도가 유일하다.

해외입국자 이송지원단은 인천공항 입국장과 전주월드컵경기장에 소방공무원과 소방차량을 배치하고 운영총괄반, 수송반 2, 상황관리반 등 4개반으로 1일 소방력은 소방공무원 20명, 차량 14대를 운용중이다.

이송체계는 해외입국자가 입국장에 도착하면 분류 및 공항버스 탑승으로 전주월드경기장으로 안내한다.

도착한 입국자들은 소방 구조버스에 탑승해 해당 시 · 군 보건소로 이송, 해당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마친 후 자택으로 이송, 자가격리 조치를 하게 된다.

현재까지(1월 13일 기준) 해외입국자 수송인원은 총 1만37명으로 내국인 6,764명, 외국인 3,273명이다.

특히, 도내 확진자 중 해외입국자는 90명으로 이는 전북도내 총 확진자(959명) 대비 9.4%에 해당한다.

김현철 구조구급과장은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입국자 이송 및 관리강화로 코로나19 해외유입차단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최대 5000만원' 보장

전주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대폭 확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강도 등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지원되는 '전주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이 크게 늘었다.

전주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자연재해 · 폭발 · 화재 · 붕괴 등의 사고 시 지급하는 '전주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주 시민안전보험은 전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자연재해 사망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강도 사고 ▲익사 사망 등의 피해를 당하면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당초 지난해까지 일사 ·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사망하거나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소폭 증액됐다.

이밖에 대중교통을 타다가 또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와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보험금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조직(02-6900-2200)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이나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은 제외된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 2호방조제 행정구역 '김제시 관할'로 최종 확정

대법원, 귀속 결정 취소소송 원고 측 주장 '기각'

대법원은 14일 새만금 2호방조제 행정구역 관할 결정을 두고 5년동안 이끌어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김제시 관할로 확정했다. 〈관련기사 7 · 8면〉

대법원 특별1부는 2015년 11월 27일 군산시,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1 · 2호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군산시, 부안군)측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앞서 군산시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지난해 9월 24일 각하됨으로써 새만금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관할결정 소송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소송 결과로 새만금지역을 둘러싼 3시군의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도 종식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새만금 지역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군산 앞은 군산시로, 김제 앞은 김제시로, 부안 앞은 부안군으로 각각 행정구역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김제시민과 출향인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고 밝히며 "이번 사법부의 최종 선고로 새만금이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발전하길 바라고 새만금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경제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산시, 부안군의 협력과 중앙정부, 전북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